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계: 대상적 자기 손상의 매개효과

김 은 희[†]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과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적 자기 손상이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로는 아동기 외상 질문지,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 및 경계선 성격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을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전매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둘째,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은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으로 개념화되는 대상적 자기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대상적 자기 손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청소년기 외상, 학대, 방임,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

[†] 교신저자 : 김은희,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Tel : 033-250-6850, E-mail : eh.kim@kangwon.ac.kr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고 성격형성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아동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사회구조의 불안정으로 초래된 실업문제와 맞벌이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지지기반 약화, 이혼율 증가 등은 부모가 안정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적 및 심리적 조건을 저해한다. 부모에게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기 보다는 못마땅한 점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가족과 맞벌이는 자녀에게 정서적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시간적 여유를 제한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은 원치 않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인 제약과 그로 인한 부모의 힘겨운 삶은 꼭 병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을 다분히 훼손시킬 수 있다.

외상은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발달에 손상을 입히거나 취약성을 야기하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입은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학대(abuse)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아동에게 물리적인 위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가해지는(acts of commission) 것이다. 방임(neglect)은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아동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나 반응이 주어지지 않는(acts of omission) 것이다(Brown, Cohen, Johnson, & Smailes, 1999). 여러 연구들은 학대와 방임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그 차이를 구분해보려 하였으나 일관된 결론은 얻지 못하

였다(Brown et al., 1999; Cohen, Brown, & Smailes, 2001; 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이는 외상의 하위유형이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 양육 장면에서는 여러 유형의 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빈곤이나 부모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하위 유형에 따른 고유한 영향을 변별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신민정, 최지영, 2015에서 재인용). 다만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상경험이 개인의 삶에 심층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기에 양육자로부터 겪게 되는 학대나 방임의 경험은 한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Allen, 2005). 초기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불안정 애착의 형성과 관련이 높고,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또래들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존감의 하락과 함께 다양한 외현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Baer & Martinez, 2006;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Kim & Cicchetti, 2010; 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등 대인관계 부적응이 심하고 공감능력의 부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결핍, 품행문제 등을 보일 수 있다(김은경, 2009; Kim, Talbot, & Cicchetti, 2009; Kim & Cicchetti, 2010). 또한 성인기에 이르러 과거의 외상경험은 적응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 물질중독, 성격장애 등의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되며 치료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신민정, 최지영, 2015; 이유허, 2006; Carr, Martins, Stingel, Lemgruber, & Juruena, 2013; Rich, Gingerich, & Rosen, 1997). 이처럼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상을 경험한 시기가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아동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이후 만성적인 성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아동기의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방임, 가정 내의 적대적 갈등, 부모와의 외상적 상실 등이 주요한 병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와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초기 성인기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정상 통제집단보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과거력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고하였다(Herman, Perry, & van der Kolk, 1989; Sansone, Songer, & Miller, 2005; Zanarini et al., 2002). 또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elgeland & Torgersen, 2004; Johnson et al., 200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집단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 방임이나 무시 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주일, 2014; 이수지, 2014; 이아람, 김남재, 2012; 이우경, 최은실, 2013; 하수홍, 장문선, 2013). 이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 및 심각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보이는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부정적인 정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병리적인 일화,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과소 성취 등은 개인의 삶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고 가족과 친구 및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그들의 자녀에게도 정신 병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Weiss et al., 1996; Zanarini & Frankenburg, 2007).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이 뚜렷해지기 이전에 위험요인이 되는 심리적 기제들을 밝히는 것은 심각한 장애로의 발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들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고 실제 유병율도 젊은 성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A, 2013; Grant et al., 2008), 아동 청소년기에 외상경험이 있고 경계선 성격 특성을 보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밝히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심리적 기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과거력에서 학대와 방임이 자주 보고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상경험이 직접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발현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상 그 자체보다는 외상의 처리방식과 연결된 의미와 해석이 더 중요한 것처럼(Ehlers & Clark, 2000), 동일한 자극이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병리적인 성격이나 우울,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명백한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제약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자녀에게 모질게 대하게 되거나 맞벌이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동이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이후 장애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와 방임이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아람과 김남재(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이 두 변인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으며, 하수홍과 장문선(2013)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를 거쳐 경계선 성격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신주일, 2014), 초기 부적응 도식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수지, 2013), 불안정 애착(이우경, 최은실, 2013) 등의 매개효과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단편적인 접근들로는 어떠한 변인이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치료적 중재를 위해서 어떤 접근을 선택해야할지도 혼란스럽다. 따라서 여러 매개변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erman(1992)은 아동기 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이 지속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성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켜서라도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 간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자기인식의 변화나 타인과의 관계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대인 간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보다 심층적인 자기(self) 영역에서의 병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Herman, 1992; 안현의, 2007에서 재인용). Harter(1999)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이 자기체계의 여러 하위영역에 손상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자기체계(self-system)의 손상이란 구체적으로 주체적인 자기(I-self) 손상, 대상

적인 자기(Me-self) 손상, 부정적인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 자기 처벌적 행동(self-punitive behavior), 거짓 자기(false-self)등을 포함한다(Harter, 1999;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에서 재인용).

이 중 대상적인 자기(Me-self)는 자신 및 타인의 평가가 개입된 '대상으로서의 나'를 의미하며, 그동안 자기가치감(self-worth)이나 자기평가(self-evaluation) 등으로 연구되어온 개념이다(Harter, 1999; 장진이, 안현의, 2011에서 재인용). 자기가치감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써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기가치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관계 속에 있는 아동은 부모의 따뜻한 반영과 보살핌으로 인해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으나,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아동은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비난과 모욕을 내면화하여 부정적인 자기(negative self)를 발달시키게 된다(Bolger et al., 1998). 선행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냉대 속에서 자랐거나 외상적 상실을 경험한 성인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 부적절감과 자기 비난, 자기 증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아람, 김남재, 2012; Allen, 2001; Drapeau & Perry, 2004; Lopez & Heffer, 1998).

또한 학대받는 아동은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대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인 부모나 양육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 즉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혼나는 것으로 외상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는 자신의 안전이 신뢰할 수 없는 양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고 생각할 때 느끼는 무력감 대신에 일말의 통제감이라도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다(Herman, 1992; McWilliams, 1994). 이처럼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괴로운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일어난다. 외상사건에 대한 귀인과정에서 자신의 특정 행동이 나쁘다고 평가할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전체가 나쁘고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할 만하다는 내적 평가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Allen, 2005; Harter, 1999; Wilson, Droždek, & Turkovic, 2006).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심리적 학대와 무관심이 성인기의 수치심 및 죄책감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고(이정숙, 김은경, 2007; Claesson & Sohlberg, 2002; Webb, Heisler, Call, Chickering, & Colburn, 2007), 수치심이 외상 사건의 심각성과 정신병리 및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은영, 안현의, 2011; 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Harper & Arias, 2004; Kim et al., 2009).

이 연구는 Harter(1999)가 제안한 외상반응으로서의 자기체계 손상 중에서 대상적인 자기(Me-self) 손상으로 개념화되는 부정적인 자기(negative self)와 그로 인한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의 관심이 비교적 경미한 외상경험이 있고 또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과 사회적 기능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있으므로, 해리 방어로 초래되는 주체적인 자기 손상이나 심각한 자기 처벌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발달과제는 주로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각하는 자기개념 및 괴로운 자의식적 정서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자아상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몹시 취약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고통스러운 정서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이 부정적자기, 죄책감,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기개념,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초기 부적응도식, 수치심, 거절 민감성, 불안정 애착 등의 개별 변인들을 투입하여 단편적인 매개효과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대상으로서의 자기(Me-self) 인식과 이로 인해 경험되는 자의식적 정서를 선정하고,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들 변인이 핵심기제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아직 장애로 진전되지 않은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개입하기보다는 외상 반응으로써 증상을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만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완전매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550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아동 청소년기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176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상 유형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성적 학대를 보고한 응답자는 9명에 불과하여 반응의 동질성을 위해 해당 사례를 제외하였다. 이에 총 3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 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165명(45.2%)이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 및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 등의 단순 외상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1.7세($SD=1.93$)였으며, 이 중 여학생은 210명(57.5%)이고 남학생은 155명(42.5%)이었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이유경(2006)이 번안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받았을 법한 학대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의 척도는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으로 각 5문항

씩 25문항과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 척도별로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4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정서적 학대에 관련된 척도에서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와 신체적 학대에 관련된 척도에서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4점 Likert식(0; 전혀 아니다, 3; 자주 있었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주요 분석에서는 성적 학대를 제외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학대 변인으로,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방임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대와 방임의 각 총점 범위는 0-24점이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학대가 .73, 방임이 .60이었다.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진이와 안현의(2011)가 개발한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raumatized Self-System Scale; T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기체계의 전반적인 손상 정도를 측정하며 주체적 자기 손상 24문항, 대상적 자기 손상 15문항, 자기조절 손상 15문항, 관계적 자기 손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적 자기 손상은 Harter(1999)가 제안한 대상적인 자기(Me-self)와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 요인은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식(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 한 결과, 대상적 자기 손상에 대한 3개 하위요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44~.75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orey (1991)가 개발한 성격평가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의 11개 임상 척도 중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Borderline Features Scale: BOR)를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이며 4점 Likert식(0; 전혀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의 주요 특성들을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Morey(1991)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를 정서적 불안,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요인분석 하였을 때 기존의 4개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문항은 Morey가 구성한 하위 척도들의 문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홍상황과 김영환(1998)의 요인분석 방법을 따라 주성분 분석으로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기존의 4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8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0이하(.08~.35)로 매우 낮아 해당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부정적 관계 요인과 자기 손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1이상이 되는 등 정상적인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두 하위 요인을 하나로 묶어 '부정적 관계'로 명명하였다. 자기 손상 요인의 문항들을 부정적 관계 요인에 포함시

켜 위계적 2차 3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FI=.89, RMSEA=.07). 1차 3개 요인(정서적 불안,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에 대한 15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5~.77이었으며, 2차 요인에 대한 3개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82~.95였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Morey(1991)의 연구에서 .86이었고,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84를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각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 추정 방법은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 (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후에,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을 이용하거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다만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연구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검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들로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와 CFI 값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본다(Bentler, 1990). RMSEA 값은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채택된 모형에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와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r=.31, p<.01$), 경계선 성격특성($r=.26,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상적 자기 손상 또한 경계선 성격특성($r=.53,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대는 대상적 자기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1\sim.23, p<.01$), 경계선 성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 아동청소년기 외상	-										
2. 학대	.82**	-									
3. 방임	.88**	.45**	-								
4. 대상적 자기 손상	.31**	.26**	.26**	-							
5. 부정적 자기	.30**	.23**	.27**	.89**	-						
6. 죄책감	.23**	.21**	.18**	.82**	.60**	-					
7. 수치심	.27**	.23**	.23**	.90**	.73**	.59**	-				
8. 경계선 성격특성	.26**	.26**	.19**	.53**	.49**	.44**	.47**	-			
9. 정서적 불안정	.24**	.24**	.18**	.37**	.36**	.29**	.31**	.87**	-		
10. 정체감 문제	.24**	.23**	.18**	.58**	.49**	.47**	.54**	.81**	.52**	-	
11. 부정적 관계	.15**	.17**	.09	.38**	.36**	.34**	.30**	.82**	.63**	.48	-
평균	5.92	2.86	3.09	18.80	5.13	7.03	6.63	15.43	3.85	5.95	5.62
표준편차	5.24	2.80	3.36	9.83	3.75	3.36	4.11	6.99	2.46	2.41	3.45
편포도	1.42	1.51	1.49	0.53	0.78	0.48	0.50	0.60	0.57	0.09	0.93
첨도	1.80	2.24	2.24	-0.05	0.08	0.28	-0.07	0.26	-0.11	-0.25	1.18

주. N=365, ** $p<.01$

격특성의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7 \sim .24, p<.01$). 방임은 대상적 자기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18 \sim .27, p<.01$), 경계선 성격특성의 두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8, p<.01$), 부정적 관계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r=.09, ns$). 대상적 자기 손상의 하위요인들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들과 각각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9 \sim .54, p<.01$).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정상분포조건이 편포도가 2 이하, 첨도가 4 이하임을 고려할 때 (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계수는 모두 유의하였지만($\beta=.38 \sim .63,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RMSEA 값이 .09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변인들 간의 공분산 수치를 제공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살펴 보았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의 두 측정변인인

정서불안정과 부정적 관계의 오차변인들 간에 상관이 유의하게 높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유사하고 서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서 불안정에 포함된 문항,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는 부정적 관계에 포함된 문항들,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려 주고 싶다’,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와 의미가 유사하고 행동적인 연관성도 높아 보인다. 이처럼 유사내용으로 인해 잔여상관이 기대되는 경우에 오차공분산이 허용될 수 있다(홍세희, 2012).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정서불안정 변인과 부정적 관계 변인 간의 오차공분산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자료가 모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모형의 수정전후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표를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요인부하량은 .56에서 .88사이로 모두 유의하였다(표 3).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상적 자기 손상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모

표 2. 수정전후 측정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수정전 측정모형	74.951	17	.000	.912	.946	.097
수정후 측정모형	27.582	16	.035	.981	.989	.045

표 3. 수정된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B	S.E.	$t(p)$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 학대	.69	0.86	.16	5.14***
	→ 방임	.66	1.00		
대상적 자기 손상	→ 부정적 자기	.85	1.00		
	→ 죄책감	.71	0.75	.05	14.49***
	→ 수치심	.85	1.10	.06	17.50***
경계선 성격특성	→ 정서 불안정	.60	1.33	.12	11.54***
	→ 정체감 문제	.88	1.91	.22	8.63***
	→ 부정적 관계	.56	1.00		

주. $N=365$, *** $p<.001$

두 유의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모형으로써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부분매개 모형 역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나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beta=.09$, ns), 완전매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재된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χ^2 검증에서는 모형에서 1개의 모수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χ^2 값의 차이가 3.84 보다 커야만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연구모형과 비교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가 3.84 보다 작으므로,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와 χ^2 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모형의 간명성에 따라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적 자기 손상은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두 모형의 각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그림 1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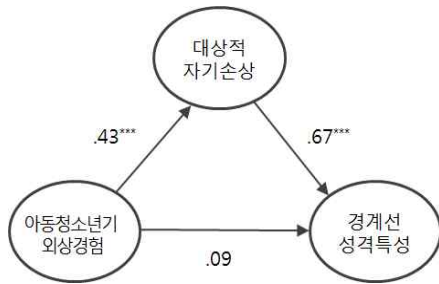


주. *** $p<.001$

그림 1. 연구모형

표 4.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 모형)	29.286	17	.032	.981	.989	.045
비교모형 (부분매개 모형)	27.582 ($\Delta 1.70$)	16	.035	.981	.989	.045



주. *** $p < .001$

그림 2. 비교모형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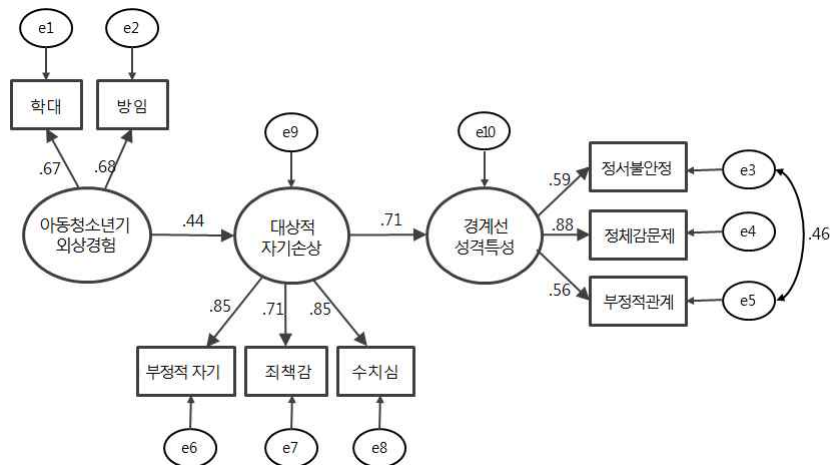
연구모형에서 확인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자료의 정상성이 우려될 경우에 사용하는 매개효과 분석 방법이다. 원자료($N=365$)에서 무선 표집으로 재추출된 10,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상적 자기 손상을 거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30, p < .01, 95\% \text{ CI}, .17 \sim .46$). 최종적으로 채택된 완전매개 모형과 각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5.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 대상적 자기 손상 → 경계선 성격특성	.30**	.17 ~ .46

주. ** $p < .01$



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함($p < .001$).

그림 3.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 대한 완전매개 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대상적 자기 손상,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대와 방임 등의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상적 자기 손상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대적이고 거부적이며 무관심한 가족환경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에 일차적인 병인이 됨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신주일, 2014; 하수홍, 장문선, 2013; Helgeland & Torgersen, 2004; Herman et al., 1989; Sansone et al., 2005). Fonagy와 Target(1996)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반복적으로 지속된 대인간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 애착형성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감정 및 조절 상태를 부모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반영적인 반응은 다시 아동에게 전해져 상호적인 관계양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학대 경험은 이 같은 애착 관계 자체를 교란시키므로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과 자기개념의 혼란을 일으켜 경계선 성격특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 손상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이아람, 김남재, 2012; Drapeau & Perry, 2004; Lopez & Heffer, 1998).

또한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연결된 괴로운 자의식적 정서가 비난, 무관심 같은 가족 내 역기능적인 역동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최은영, 안현의, 2011; Claesson & Sohlberg, 2002; Harper & Arias, 2004; Webb et al., 2007). 대상적 자기 손상과 경계선 성격특성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난, 이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크게 경험할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의 주요양상인 정체감 혼란과 정서조절의 곤란,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Chan et al., 2005).

다만 방임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방임이 무력감이나 불행감 같은 내현화 문제와 더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ainly et al., 2001). 아동기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를 당한 성인은 타인이나 주변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무시되거나 방임되었던 성인은 내향성 및 낮은 긍정적 정서,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고립되는 경향과 더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신민정, 최지영, 2015; Bolger et al., 1998; Salzinger, Feldman, Hammer, & Rosario, 1993). 더욱이 응답자들이 보고한 학대와 방임의 경험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므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파괴적인 대인관계의 일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대상적 자기의 손상을 통하여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 모형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비교모형인 부분매개 모형과 비교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모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을 당한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대상적 자기 영역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대상적 자기영역에서의 손상이 유의할 경우에만 초기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arter(1999)는 아동이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위협받거나 방치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러한 긴장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상 사건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귀인한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Allen(2005)은 후기 아동기에 이르러 자기개념이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더욱 자기 비판적이게 되고 이상적 자기와는 다른 현실적 자기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Allen, 2005; Harter, 1999; 안현의 등, 2009에서 재인용). 이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자신이 못나고 부적절하며 무언가 결함이 있다는 자기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감은 항상 일을 그르치고 잘못을 연발한다는 죄책감으로 연결되거나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깊은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청소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된 경우에 결국 안정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체감 혼란을 겪게 되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비롯

된 우울과 분노, 불안 등의 불안정한 정서가 대인관계 장면에서 파괴적으로 행동화되는 등 경계선 성격특성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동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이 반드시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자주 체벌과 비난을 받았거나 무시와 방치로 인해 부모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두려움 속에서 지냈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이나 매스미디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행동이 양육에 적절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자기비난과 수치심이라는 함정에서 뒤늦게나마 빠져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가족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빈곤과 힘겨운 노동,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에게 자녀를 돌볼 심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모질게만 느껴졌던 부모의 행동 이면에 자식을 위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한계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 그 동안 부정적으로 경험되었던 외상 사건들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Jurkovic, Thirkield와 Morrell(2001)은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등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상태를 부모화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라 지칭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모화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혼 등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녀가 부모를 정서적으로 돕고 보살피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적응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Fonagy와 Bateman(2007)은 개인의 욕구나 감정, 신념과 같은 마음상태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내적 과정을 심리화

(ment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 심리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분석하는 성찰과정을 작동시키며, 이 때 자각된 기분과 생각은 공감적이거나 비공감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Choi-Kain & Gunderson, 2008). 아동기 외상이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찰기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심영숙(2010)의 연구는 외상경험이 많은 성인들 중 어린 시절의 외상 사건에 대해서 심리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병리 취약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아동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 사건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미숙한 훈육 탓이거나 적어도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결과로 귀인할 수 있다면, 혹은 부모가 처한 힘겨운 상황과 환경이 배려심 있는 양육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의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며 성장을 위한 자원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하여 성장을 위한 도전을 주저하거나 지나치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인관계 장면에서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자의식적 정서를 심하게 느끼므로 건설적인 자기주장과 상호적인 관계가 어려우며 결국 자기조절의 문제로 빠질 위험이 높다. 이러한 양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심화되면 폭식과 음주, 파국적으로 끝나는 이성 관계, 내내 참았다가 갑작스럽게 결렬되는 대인관계 패턴의 반복,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철회해 버리는 등의 행동문제가

뚜렷해지면서 학업과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개입하기 보다는 우선 개인사에서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상반응으로서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을 진단하기 위해 자기개념과 자의식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외상 경험에 대한 잘못된 귀인을 바로 잡고 다양한 조망으로 심리화 능력을 키워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그리하여 막연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로의 진전을 막고 자신의 삶을 새로이 개척하려는 의지를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 또한 그들의 건강한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불운한 경험이 자기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대상적 자기 영역에서의 손상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투입된 여러 매개변인을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서 대상적 자기 영역을 다루는 것은 이후 경계선 성격장애로의 병발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지역사회 대학생 집단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다양한 표집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만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아동 청소년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자세하게 측정되지 못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주관적인 보고와 같은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내 외상 사건이 아동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어린 시절 학대에 관여한 가족 구성원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은 과거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자주 촉발시켜 대상적 자기 손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외상의 발생은 부정적인 정서와 아울러 자기 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아동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PD-BOR)는 본 연구의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성격장애와 관련 있는 성격적 특성은 임상집단 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Trull, 1995; 홍상환, 이영환,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의 점수 범위는 1~38점(척도 점수 범위 0~69점)으로, 뚜렷한 증후군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원점수 39점 이상인 응답자는 없었으므로 경계선 성격 성향이 전반적으로 낮

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원래의 척도가 가진 4요인 구조를 밝힐 수 없었고, 부정적 관계 요인과 자기 손상 요인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아 두 요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응답자들의 경계선 성격 성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이 보이는 자기 손상은 심각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기 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이 충동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늘려 경계선 성격의 점수 분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신민정, 최지영 (2015).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우울장애 환자의 성격병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19-738.
- 신주일 (2014). 복합외상,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 경계선 성격 증상 간의 관계: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병리의 관계: 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

- 지: 일반, 28(2), 283-301.
- 이수지 (2014).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이우경,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413-430.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장진이, 안현의 (2011).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359-385.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95-27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S & M 리서치 그룹.
- Allen, J. (2001). *Traumatic Relationships and Serious Mental Disorders*.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er, J. C., & Martinez, C. D. (2006). Child Maltreatment and insecure attachment: A meta analysi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 187-19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Harcourt Brace & Company.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mailes, E. M. (1999). Childhood abuse and neglect:

-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2), 1490-149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arr, C. P., Martins, C. M. S., Stingel, A. M., Lemgruber, V. B., & Jurueña, M. F. (2013). The role of early life stress in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childhood trauma subtyp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1(12), 1007-1020.
- Chan, M. A., Hess, G. C., Whelton, W. J., & Yonge, O. J. (2005). A comparison between female psychiatric outpatients with BPD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Traumatology*, 11(1), 23-40.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127-1135.
- Clae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4), 277-284.
- Cohen, P., Brown, J., & Smailes, E. (2001).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development of mental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81-999.
- Drapeau, M., & Perry, J. C. (2004). Childhood trauma and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a study using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Child Abuse & Neglect*, 28(10), 1049-1066.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Fonagy, P., & Target, M. (1996). Playing with reality: Theory of mind and the normal development of psychic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7, 217-234.
- Fonagy, P., & Bateman, A. W. (2007).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ental Health*, 16(1), 83,101.
- Grant, B. F., Chou, S. P., Goldstein, R. B., Huang, B., Stinson, F. S., Saha, T. D., ... & Ruan, W. J. (2008).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from the Wave 2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9(4), 533-545.
- Harper, F. W. K., & Arias, I. (2004). The role of shame in predicting adult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victims of child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367-375.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lgeland, M. I., & Torgersen, S. (2004).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3(2), 138-147.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erman, J. L., Perry, J. C., & van der Kolk, B. A. (1989).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490-495.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 (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42*, 16-23.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54-257.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n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 Kim, J., Talbot, N. L., & Cicchetti, D. (2009). Childhood abuse and curren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shame. *Child Abuse & Neglect, 33*, 362-371.
- Lopez, M., & Heffer, R. (1998).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 183-195.
-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 (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759-782.
- McWilliams, N. (1994).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ollak, S. D., Cicchetti, D., Hornung, K., & Reed, A. (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79-688.
- Rich, D. J., Gingerich, K. J., & Rosen, L. A. (1997).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ssociated psychopath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1*, 13-28.
- 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1), 169-187.
- Sansone, R. A., Songer, D. A., & Miller, K. A. (2005). Childhood abuse, mental healthcare

- utilization, self-harm behavior, and multiple psychiatric diagnosis among inpatients with a borderline diagnosis. *Comprehensive Psychiatry*, 46, 117-12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 7, 422-445.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1, 1143-1153.
- Weiss, M., Zerkowitz, P., Feldman, R. B., Vogel, J., Heyman, M., & Paris, J. (1996).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of mother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ilot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285-290.
- Wilson, J. P., Droz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2), 122-141.
- Zanarini, M. C., & Frankenburg, F. R. (2007). The essential nature of borderline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 518-535.
- Zanarini, M. C., Yong, L., Frankenburg, F. R., Hennen, J., Reich, D. B., Marino, M. F., & Vujanovic, A. A. (2002). Severity of 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severity of borderline psychopatholog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among borderline in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6), 381-387.

원 고 접 수 일 : 2016. 07.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9. 27
게 재 결 정 일 : 2016. 10. 25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in Nonclinical Young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Impaired Objective Self

Kim, Eun Hee

Yi, In Hya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impaired objective self,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in nonclinical young adul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completed mediation model was proposed, in which impaired objective self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 total of 365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CTQ), Traumatized Self-System Scale(TSSS),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As a result, SEM analyses confirmed the completed mediation model. These findings indicat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is the maj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Second, childhood trauma has an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only i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leads to significant impairments of objective self, which is conceptualized as negative self, guilt, and sha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ldhood trauma, abuse, neglect, impaired objective sel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